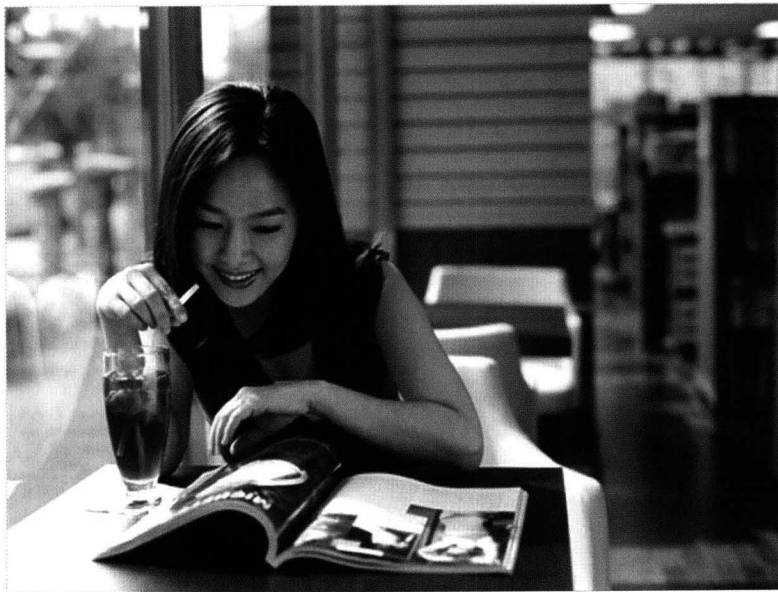


서점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다. 서점을 레저와 휴식공간으로 이용한다는 말은 이제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더운 여름날에는 하릴없이 대형서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태양과 바다와 파라솔 대신, 책과 음악과 쾌적함이 있는 서점은 여름을 나는 최고의 휴양지로 손색없다. 단순히 무더운 바깥 날씨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머리도 식혀줄 수 있는 까닭이다. 동네서점에서 눈치 보며 책을 읽던 독자들이 새로 등장한 멀티 기능의 복합서점으로 몰리고 있다. 강남 일대엔 특히 음반매장과 문구점, 음식코너가 구비돼 있는 호화로운 복합서점이 문을 열면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 바람에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도서구입이 활성화된 이즈음, 발품을 팔며 도심지에 있는 이들 대형서점에서 책도 보고, 여가도 즐기려는 독자들이 늘고 있다. 새로운 서점 풍속도 현장을 가본다.

대형서점 복합문화공간 변신, 강남권 중심으로 확산



강남 일대에 복합서점이 문을 열면서 발품을 팔아 서점에서 여가를 즐기는 독자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서울 시내 서점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리브로 등 '강북강세'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하면 강남의 진솔문고, 시티문고와 같은 중대형서점은 규모와 보유장서량에서 그보다 한참 모자랐다.

하지만 2000년, 무역센터 코엑스에 '반디 앤 루니스'가 들어선 이후 강남권에 대형서점이 줄지어 등장하고 있다. 서초구 서초동 교보타워 지하에 위치한 교보문고를 비롯해, 센트럴시티 내 영풍문고, 가장 최근 개장한 스타라이브 러리까지 한 지역에 대형서점 4곳이 '몰린' 셈이다.

의류·식품·액세서리를 비롯해 영화관, 쇼핑몰 등 복합적인 시설로 구성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몰 지하에는 대형 서점 '반디 앤 루니스'가 있다. 이름이 생소해 의아해하던 사람들은 그것이 곧 구 서울문고임을 알고서야 고개를 끄덕인다.

반딧불의 '반디'와 불빛을 의미하는 라틴어 '루니'의 합성어로 '반디 앤 루니스'라는 상호를 내건 서울문고는 12년 만에 같은 자리에 두 배가 넘는 면적으로 개조하고 캐릭터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현재는 200만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인을 비롯해 어린이와 장애인 등을 위한 넓은 독서공간과 통로를 갖춤으로써 통행불편을 최소화했다. 외부적으로는 코엑스몰의 여러 문화공간들과도 잘 어울린다.



"강남에 들어선 또 하나의 '특별한' 서점이 있다. 지난 5월 말,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에 들어선 '스타라이브러리'는 기존 서점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형태로 화제가 되고 있다. 시설도 화려하고 컨셉트도 여느 서점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체 3층 규모로 서점과 카페테리아, 음반매장 등이 들어서 있고, 1,000석의 도서관과 63개의 미팅룸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간단한 음식과 차를 책과 함께 즐기도록 했다."

지역적으로 10개 지점을 확보하고 있는 영풍문고는 2000년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지하에 1,300여 평의 규모로 강남점을 개장했다. 지하공간이지만 쾌적한 분위기를 위해 천정을 높게 하고 중층공간을 만드는 등 효율성을 높여 설계했다. 주변에는 영화관과 쇼핑몰, 음식점 등이 많아 강남에 위치한 또 하나의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해낸다. 강남버스터미널, 백화점과 멀지 않아 유동인구가 많다는 이점이 있다.

1981년 광화문점 이후 전국 제일의 대형서점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교보문고는 지금까지 전국 9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만 2003년 5월에 강남점을, 지난 7월에는 인천점을 개장했다. 특히, 강남점은 지상 25층 규모의 교보생명 건물 지하 두 층에 2,000여 평의 면적을 갖추고 있다. 서점과 함께 어린이들의 독서공간인 'Kid's Garden'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있는 '문화 이벤트홀'을 마련해 책을 사러 온 이들에게 책구입과 함께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누릴 수 있는 행사도 열고 있다.

이처럼 대형서점은 독자적인 문화공간의 형태로 그 중 몇몇은 거대한 쇼핑 문화센터 내부에 위치해 있다. 굳이 책을 사러 가지 않는 경우라도 자연스럽게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시설과 구조를 꾸민 셈이다.

강남에 들어선 또 하나의 '특별한' 서점이 있다. 지난 5월 말,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에 들어선 '스타라이브러리'는 기존 서점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형태로 화제가 되고 있다. 시설도 화려하고 컨셉트도 여느 서점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체 3층 규모로 서점과 카페테리아, 음반매장 등이 들어서 있고, 1,000석의 도서관과 63개의 미팅룸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간단한 음식과 차를 책과 함께 즐기도록 했다. 토론에 익숙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 단 미팅룸과 열람실은 유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각 층마다 마련된 카페테리아는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책을 읽는 편안한 장소로 아주 그만이다. 이곳에선 몇몇 사람이 모여 대화를 하거나 엄마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회원에 한해 미니도서관 형식으로 블로그를 제공, 독자들 스스로 책을 읽고 난 후의 감상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점들이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어 옥외 활동이 제약받거나, 불가능한 데 비해 스타라이브러리는 본관 앞에 조형물과 인공개천을 만들어 도심 속에서도 전원풍의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야외에서의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책을 '즐기도록' 하는 것은 스타라이브러리가 독자들에게 선물하는 또 하나의 '보너스'인 셈이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 잇따라 개장하는 대형서점들로 인해 강남의 중소서점들은 더욱 한숨을 쉬고 있다. 그나마 학교근처 서점들은 교과서나 참고서로 연명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예전만큼의 수익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만 서점에 들르지 않는다. 좁은 통로에 쪼그리고 책을 구경하는 서점에서 발길을 돌린다. 책을 보는 동시에 여러 문화체험과 여가생활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의 수단으로서 서점을 찾는다. 서울 강남지역을 비롯해 또 한 번의 소리없는 문화적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한문**

취재 홍이현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